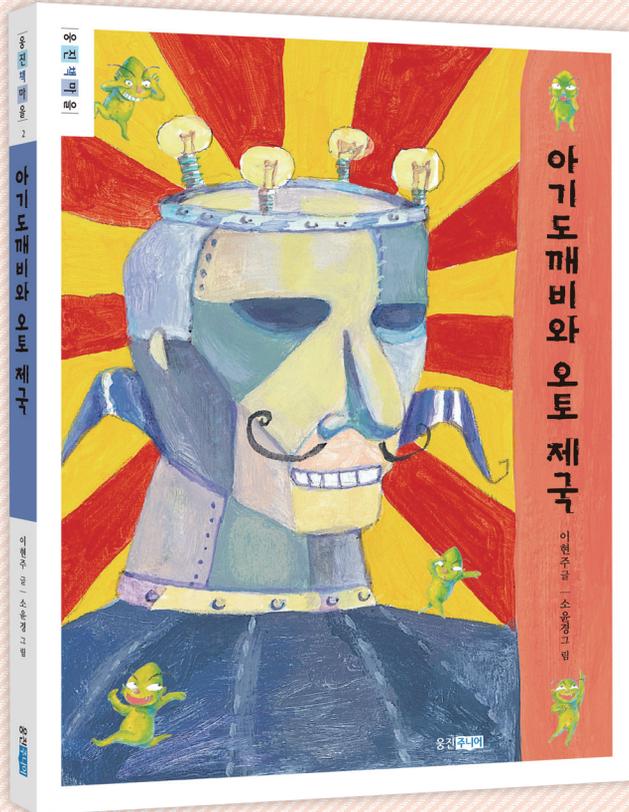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이현주 글 | 소윤경 그림 | 웅진주니어 | 179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꿈이건 아니건 그 기분 나쁜 오토 제국인가 뭔가 하는
대머리들의 나라가 없어져서 루루는 기분이 좋았다.
참 기가 막히게 고약한 나라였다.
자기 마음과는 영똥하게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다니!
역시 사람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해!
아무리 편리하면 뭘 해!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뭘 해!
제 맘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야지!

① ‘오토 제국’을 가리키는 말을 모두 찾아 쓰고, 어떤 나라인지 쓰세요.

⇨

② 사람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는지 쓰세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오치구 박사는 기분이 좋아 마음껏 목청을 돋우어 노래를 불렀다.
- “벌거벗어서 망측하기는 하다만 넌 도깨비치고 꽤 귀엽게 생겼다.”
 - “다만 여기에 온 이상 우리의 전능하신 오토 하느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런 케케묵은 생각도 여기서는 모두 버려야 해요.”
 - 어둠 속에서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것은 작은 소나무들과 별빛을 받아 빛나는 이슬 젖은 풀잎들이었다.
- (나) · 여기저기 따로 떨어져 있는 구름들을 한데 모으니 집채만큼이나 큰 구름이 되었다. / “그래서 옛말에도 ㉠□□□□ □□이라 했지!”
- ㉡□□□□ □□이라더니, 그야말로 갈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박 순경은 그들이 나누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절을 할 것 같았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도를 더 높이다.
 - ② 어떤 일이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
 - ③ 뚜렷하게 보이거나 들리지 아니하고 희미하고 흐릿하다.
 - ④ 일, 지식 따위가 아주 오래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데가 있다.
 - ⑤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그러져 어이가 없거나 차마 보기가 어렵다.

2) (나)의 ㉠~㉡에 들어갈 말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그 노래는 언젠가 장자못 위를 지나가던 ()한테서 배운 노래였다.
 · 그들은 마치 귀머거리 또는 눈먼 () 같았다.
 · “이 건물로 들어오기 위하여 당신들은 간단한 ()을 밟아 주셔야겠습니다.”
 · 종이 ()와 머리카락은 모두 빨아들이지만 커다란 돌맹이는 빨아들이지 못하는 진공청소기처럼, 하늘의 커다란 자루는 몇 번이고 루루의 머리 위에서 맴돌더니 하는 수 없다는 듯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 “이럴테면 시냇물 흐르는 소리라든가 들판에 울리는 종소리같이 은은한 소리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당신은 () 깨지는 소리요?”
- (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에서 오치구 치과 병원을 내고 있는 치과 의사 오치구 박사는, 어렸을 때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다.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소경 : ‘시각 장애인’을 낫잡아 이르는 말.
- ② 나부랭이 : 종이나 형질 따위의 자질구레한 오라기.
- ③ 수속 :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
- ④ 하늬바람 : 서쪽에서 부는 바람. 주로 농촌이나 어촌에서 이르는 말이다.
- ⑤ 양재기 : 안팎에 범랑을 올린 그릇. 양은이나 알루미늄 따위로 만든 그릇을 포함하기도 한다.

2) (나)의 관용구(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 ㉠의 뜻을 쓰시오.

⇨

노래하는 치과 의사 / 출추는 버스에서

이름 :

💡 다음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치구 박사가 다시 헤엄쳐 나왔을 때, 고기 바구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루루가 뚜껑을 열고 갈혀 있던 아흔아홉 마리 어리석은 붕어를 모두 놓아주었음은 두말할 것 없겠지! / 고기들이 모두 도망친 것을 보고 오치구 박사는 어떻게 했을까? 분해서 필필 뛰며 소리소리 질렀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허허허 웃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 “흠에서 온 자는 흠으로 가고, 물에서 온 자는 물로 가도다. 자, 그러면 이만 서울에서 온 자는 서울로 가 보실까?”

(나) “인마, 넌 누구냐?” /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루루가 대답했다.
 “아기도깨비 루루.” / “네가 도깨비아?” / “그래.” / “그런데 왜 빨이 없니?”
 “아직 안 났거든. 어린 송아지에 빨 있는 거 봤어?” / “웃은 왜 안 입었지?”
 “푸푸푸…….” / 루루가 웃었다. 웃이라니? 거추장스럽게 그런 걸 왜 입어?
 “귀찮게 이것저것 묻지 말고 어서 뚜껑이나 닫아 줘. 잠 좀 잘 테야.”
 “인마. 이건 내 바구니야.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 “허락이라니? 허락이 뭘데? 난 아무것도 안 받았어.”

1) (가)에서 ‘오치구 박사’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오치구 박사가 다시 헤엄쳐 나왔을 때,
 루루가 _____



② 고기들이 모두 도망친 것을 본 오치구 박사는 _____

2) (나)에서 ‘루루’가 ‘오치구 박사’에게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쓰시오.

⇨

검은 안경과 땅딸보 / 할아버지 시계

이름 :

💡 다음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치구 박사는 소매치기 둘을 데리고 집으로 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망설이고 있는데 루루가 다시 말했다. / “경찰서로 데려다 줘 봤자 풀려 나오면 또 나쁜 짓이나 할 텐데……. 아저씨가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오치구 박사는 아내 이소리 여사와 단둘이 살고 있는 커다란 집을 생각해 보았다. 이 두 녀석이 들어가 살면 가득 찬 느낌이 들겠지. 집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기 좋아. 이 친구들이 워낙 고약한 짓을 한 자들이라 마음에 췌기는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루루가 함께 있으면 못된 짓을 못 하겠지.

(나) “이 할아버지 시계는 우리 집에서 가장 민주주의란 말이야!” 오치구 박사는 손님들에게 자랑삼아 말하곤 했다. / “시계가 민주주의라니?” /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사이좋게 함께 사는 것, 이게 민주주의 아니고 뭐가? 하하하…….”

가끔 이소리 여사가, / “저 시계, 병원에 좀 보냅시다. 종 치는 소리만 듣고는 늘 속아 넘어가게 마련이니……, 원 참!”

1) (가)에서 ‘오치구 박사’가 ‘두 녀석’과 집에서 함께 살겠다고 결정한 이유를 쓰시오.

⇒

2) (나)에서 ‘오치구 박사’는 ‘할아버지 시계’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말의 뜻을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다들남 건설 주식회사

이름 :

💡 다음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이봐요,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처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 “몰라요.” / “아니,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거요?” /
 “네. 그냥 가 보는 거지요, 뭐. 사람들이 모두 가니까요.”

그러자 청년은 잠시 서 있더니, 허둥지둥 처녀의 꿈무늬에 따라붙었다. 사람들의 긴 줄이 시청 앞 지하도에서 소공동 쪽으로 뻗처럼 꿈틀거리며 이어져 나오다가 주춤거리며 멈추었다. 그러더니 이어서 기다란 사람 줄이 흐트러져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뒤죽박죽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어느 빌딩의 현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유명한 ‘다들남 건설 주식회사’의 66층짜리 빌딩이다.

(나) 이렇게 해서 시끌벅적 싸움판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이 어찌 된 일이나? 도무지 누구 하나 곁에 와서 기웃거리며 구경하는 사람조차 없으니, 참으로 이상하기만 한 일이다. 이 ‘다들남 건설 주식회사’의 66층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의 일에는 눈길조차 줄 틈이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마치 귀머거리 또는 눈먼 소경 같았다. 그러나 자기네끼리는 열심히 말하고 또 듣는 것을 보면 귀머거리도 소경도 아닌 것은 틀림없다.

1) (가)에서 ‘다들남 건설 주식회사’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사람들의 모습 : 처녀는 사람들이 모두 가니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간다고 말했고, 이어서 청년도 처녀의 꿈무늬에 따라붙었고, _____

② 의미 :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__

2) (나)에서 ‘다들남 건설 주식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이상한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

눈부신 오토 제국 / 루루가 루루지

이름 :

💡 다음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머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했다. / “희망을 버린다는 건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낙원에 와 있다는 표시니까. 생각해 보시오. 희망이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은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요? 당신이 만약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면 그건 지금 있는 형편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 다시 말하지만 여긴 눈부신 오토 제국이요. 여기보다 더 훌륭한 곳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쓸데가 없다 이 말ियो. 자, 그럼……, 아가씨들 수고하시오.”

(나) “자, 여기가 우리 위대한 오토 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선 저 위의 글을 읽어 봐.” / 그러나 루루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낙원, 오토 제국. /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이다.

라고 쓴 글을 물론 읽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읽을 줄을 모른다고 말하라? 창피하게……. /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대머리가, / “그래, 여기서 너는 모든 희망을 버리겠니?” / 하고 물었다. / 루루는 한참 생각하다가 ‘희망’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①대머리의 말투로 보아 버리라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1) (나)의 꿈 내용으로 보아, ‘시우’가 ‘불개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쓰시오.

① 희망이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고, _____



②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낙원에 와 있다는 표시이고, _____

2) (나)에서 ‘루루’가 ①과 같이 행동한 근본적인 이유를 쓰시오.

⇨

하-585 / 입이 없으면 눈으로

이름 :

💡 다음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머리 여자가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은 은빛 기계들이 가득 차 있는 작은 방이었다. 그 작은 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오치구 박사는 문 위에 써 붙여 놓은 팻말을 읽었다.

오토 갱생실 / -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

‘갱생이란, 죽었다가 산다는 뜻이 아닌가? 또는 아주 못 쓰게 된 물건을 다시 쓸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갱생이라 하지……. 그렇다면…….’

(나)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입술과 혀만이 아니었다. 마치 그들의 입술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그들의 손과 발 또한 속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오치구 박사는 그만 울고 싶어졌다. 이 일을 어찌란 말인가? 나의 손과 발이 내 말을 듣지 않다니? 이걸 꿈치고도 너무 지독한 악몽이야! 그러나 오치구 박사는 어떻게 해야 이 꿈에서 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안다고 한들, 이제 말과 몸짓까지 모조리 빼앗긴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

1) (가)에서 ‘오치구 박사’가 생각한 ‘갱생’은 무엇인지 쓰시오.

⇒

2) (나)에서 ‘오치구 박사’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입술과 혀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_____



② 손과 발이 말을 듣지 않아서 울고 싶어졌고, _____

노랑집

이름 :

💡 다음 <아기도깨비와 오토 제국>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랑집’이 무엇 하는 덴지,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몰랐지만 걱정할 것 하나 없었다. 발이 걸어 가는 대로 걷고 입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 정말이지 만고에 걱정할 일이 없었다. 오치구 박사는 그제야 왜 그들이 ‘영원한 낙원 오토 제국’이라고 떠들어 대는지 조금 알 것도 같았다. 하긴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 ‘낙원’이라고 할 만도 하지!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다면 즐거움과 기쁨 또한 없을 것 아닌가? 그리고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말해야 한다.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꼭두각시일 뿐이다. 꼭두각시한테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물론 없다. 그에게는 슬픔도 없고 따라서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삶이 없는 것이다. ㉠삶이란 슬픔과 기쁨이 날줄과 씨줄이 되어 짜는 옷감과 같기 때문이다. 오치구 박사는 그야말로 처량한 꼭두각시 신세가 된 자신이 너무나도 슬펐지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독일 병정처럼 씩씩하기만 했다.

1) 윗글에서 ‘오토 제국’은 걱정과 근심이 없이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 ‘낙원’이라고 할 만하다고 했다. 이러한 ‘오토 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2) 윗글에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 뜻을 풀어 쓰시오.

⇨



정답과 해설

3쪽	<p>1) (예시답안)아기도깨비가 오토 제국에 대하여 싸우는 이야기일 것 같다.</p> <p>2) 머리에 4개의 전등을 달고 눈썹과 눈동자가 없고, 콧수염이 있는 로봇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다. 주위에 초록색 아기도깨비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p> <p>3) ① 대머리들의 나라, 참 기가 막히게 고약한 나라, 자기 마음과는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나라 / ② 사람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하고, 제 맘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p>
4쪽	<p>1) ①, ⑤, ②, ④, ③ 2) ㉠ : 티끌 모아 태산, ㉡ : 갈수록 태산</p>
5쪽	<p>1) ④, ①, ③, ②, ⑤ 2) 시끄럽고 요란하다.</p>
6쪽	<p>1) ① 고기 바구니의 뚜껑을 열고 갇혀 있던 아흔아홉 마리 어리석은 봉어를 모두 놓아주었음 ② 웃으며 큰 소리로 "흙에서 온 자는 흙으로 가고, 물에서 온 자는 물로 가도다."라고 말했음</p> <p>2) 오치구 박사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니까 허락이 무엇인지 모르는 루루는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p>
7쪽	<p>1)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커다란 집에서 두 녀석과 들어가 살면 가득 찬 느낌이 들 것 같아서</p> <p>2) (예시답안) 오치구 박사는 할아버지 시계의 바늘과 종소리가 제멋대로인 것처럼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사이좋게 함께 사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의견을 모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의견 차이를 줄여 가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이다.</p>
8쪽	<p>1) ① 이러한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져 나오다가 흐트러져 다들남 건설 주식회사의 현관 앞으로 모여들었음 / ②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남</p> <p>2) 모두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의 일에는 눈길조차 줄 틈이 없지만 자기네끼리는 열심히 말하고 또 듣는 것</p>
9쪽	<p>1) ① 만약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지금 있는 형편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임 ② 오토 제국은 낙원이기에 오토 제국에 들어온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쓸데가 없음</p> <p>2) 루루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읽을 수 없어서</p>
10쪽	<p>1)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다시 쓸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p> <p>2) ① 손과 발 또한 속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제멋대로 움직였음 / ② 어떻게 해야 말과 몸짓까지 모조리 빼앗긴 이 꿈에서 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음</p>
11쪽	<p>1) (예시답안) 반드시 걱정과 근심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없다면 즐거움과 기쁨도 없을 것이다.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오토 제국의 꼭두각시가 될 뿐이고 살아간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p> <p>2) 세로 방향으로 놓인 실인 날줄과 가로 방향으로 놓인 실인 씨줄로 짜는 옷감과 같이 삶이란 슬픔과 기쁨이 오고 가고 같이 있다는 뜻이다.</p>

웅진주니어

값 7,000원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동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ISBN 978-89-01-03868-1
ISBN 978-89-01-03863-6(세트)